

#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 익산시, 농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2024년까지 40억 투입 지역특색 살린 '고령 친화형 문화활력 거점' 만들기 주력

익산시가 용동면을 노년 문화 교류 거점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시는 용동면의 특색을 살리고 이를 활성화한 고령 친화형 문화활력 거점으로의 조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용동면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 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시는 복지회관을 고령친화형 종합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해 신노년 문화교실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겨냥해 세대별로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해 면 거점지와 배후 마을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시는 또 공동급식시설을 조성해 농번기 주민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평소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이 공간을 중심으로 반찬 나눔

봉사 프로그램, 로컬푸드 용동 탐상 메뉴 개발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는 연회를 담당하고 기존 산책로를 연결, 당하계 코스모스 길을 조성해 주민 건강 워터로 조성한다. 여기에 교통편을 아끼하는 용동면 중심도로를 정비하고 가로수 식재,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시 관계자는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건강에 도움이 됐으며 좋겠다"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익산과 성당면 일원에서 개최했다.

# 익산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 행보 분주

### 조성계획 시민보고회... 24일까지 문체부에 제출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주력한다. 익산시는 20일 익산왕도미래유산센터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올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별 토론회, 희망연대와 함께한 시민 기획토론

과 시민이야기 주간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 문화도시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부서간 협의와 역할 분담 논의에 주력해 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가 경제가 되는 문화도시 익산'을 사업명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역사의 현대적 계승, 시민이 주인되는 문화도시, 도시공간의

재구성 등 7개 분야 22개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오는 24일까지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도시조성계획은 익산의 역사가 산업이 되고 예술이 일지라가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재해석했다"며 "문화도시 지정으로 지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 선유도해수욕장서 캠페인 전개

군산시가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없는 물가인정 캠페인을 전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수막 게시, 자율가격표 게시, 음식점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및 식중독 예방안내, 친절환 손님응대 등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종

사자 교육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선유도 해수욕장 물가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선유도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름다운 선유도에서 여름철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군산 이미지 제고와 명품 휴양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가인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 심리향 · 한아름찰벼 생육관리 해법모색

### 익산시 농기센터, 고품질 쌀 시범생산 중간 현장평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익산과 성당면 일원에서 개최했다.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 등 약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현장평가는 지난 4월부터 재배를 시작한 심리향과 한아름찰벼 생육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심리향을 육종한 농업기술원 이덕렬 박사과 한아름찰벼를 육종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조준현 박사가 참여해 농가들의 후기 생육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올해 심리향을 밥쌀용 최고브랜드 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 품목으로 정하고 여산에 50ha를 조성하여 한향 재배 중이다. 심리향은 호풍벼와 도화향호를 인공 교배하여 호풍벼의 밥맛과 도화향벼의 향(2-AP 성분)이 결합된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으로 익산 벼 재배품종의 68%를 차지하는 신동진벼

를 대체할 고품질 브랜드쌀로 주목받고 있다. 한아름찰은 생산 계약농가가 임의로 종자를 유통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전용실사면 설정 품종으로 올해 성당면 52농가와 성당농협은 씨제이브리딩(주)과 5년 계약재배를 통해 해마다 105ha의 생산량 전부를 수매하는 약정을 맺은 가공전용 품종이다. 이번 현장평가 컨설팅에서는 최근 비가 오고 흐린 날이 계속돼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삭패는 시기가 늦어지고 벼가 웃자랄 수 있는 만큼 이삭거름의 양을 줄일 것과 병해 발생 전 조짐을 꼼꼼히 점검해 세균병알마름병 등을 사전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공용으로 판교가 확보된 한아름찰과는 달리 시장에 런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품질 쌀 심리향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반드시 표준시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 장애인 안전용품 지원

군산시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한용품(패딩조끼, 넥워머) 및 여름용품(쿨토시), 마스크, 장갑 등 안전용품을 31일까지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리어카 및 손수레를 이용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지난 3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남아 90명 여자 90명, 총 180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원재활용 수집 촉진과 어르

신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은 군산시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과 생계를 위해 2019년 최초 지원한 이래로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길가에서 이뤄지는 수거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 어르신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군산시보건소 본격

군산시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2020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90여명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대상자의 활동량, 영양섭취,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고 온라인 코칭하는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단, 해당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농협 RPC통합 추진 군산시, 용역 착수보고

군산시가 농협RPC통합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농협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장, 7개지역 농협조합장, 농협 지역본부 안팎자재단장, 먹거리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추진방향과 내용설명, 참석자 의견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농협RPC 통합 추진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군산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승인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군산에서 RPC통합 추진 컨설팅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여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 지원하고 있다. 용역기간은 3개월로 올해 10월까지 RPC통합 추진 종합계획 마련하여 군산시 통합RPC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